

# 네덜란드, 공교육 천국 학교교육으로 충분하다



글. 정현숙(『공교육 천국 네덜란드』 저자, 고양소식 편집위원)

튤립과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 네덜란드 아이들은 학교 가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왜 그럴까? 아이들에게 학교는 친구들을 만나는 즐거운 곳이자 미래의 꿈을 마음껏 준비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학생들은 공부를 못해도 당당하다. 꼭 공부 잘해야 성공하고 잘 산다는 선입견이 없기에 그렇다.

공교육 천국의 나라, 네덜란드 교육을 만나보자.



수도 암스테르담 | 면적 415만 4천ha 세계33위 | 인구 1,721만 1,449명 세계기위(2022년 기준)



2

## 초등학생, 책가방이 없다

네덜란드 초등학생들은 책가방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학교 갈 때 놀이시간에 먹을 작은 간식거리만 가져가면 된다. 모든 책, 워크북, 학용품 등은 학교에 다 구비되어 있다. 아이들 교과서는 학교에 두고 수업시간에 꺼내서 보면 된다. 책을 집에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책가방이 필요 없는 것이다.

처음 네덜란드에 유학 갔을 때 아이들이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아 도대체 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학부모의 밤(새 학년 교육과정 소개)행사나 교사와의 10분 면담(자녀 학업성적, 태도 알려주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무엇을 배우는지 등을 다 알 수 있었다. 네덜란드 초등학교 아이들은 숙제나 과제가 거의 없다. 물론 고학년에 올라가면 학생들이 그룹별로 어떤 주제를 정해 발표하거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 등이 있지만 저학년은 학교가 끝나면 완전 자유다. 숙제도 없고 한국처럼 더 공부하기 위해 학원에 갈 필요도 없다.

이때문에 네덜란드 초등학교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마음껏 뛰어놀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양하게 배우러 다닌다. 축구, 스케이트, 수영 등 각종 스포츠나 음악, 예능 관련 취미과정도 방과 후 자유시간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3

## 졸업 전, 중·고등학교 진로 결정된다

네덜란드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마음껏 놀며 즐겁게 배우는 곳이지만, 초등학교 역시 유급이 적용된다. 유급은 학교성적(평균 6.0 이하)과 수업 태도, 학교생활 등으로 결정된다. 또한 네덜란드 초등학생들은 6학년 말, 졸업 전에 국가에서 실시하는 중학교 입학과정을 위한 시험(CITO)을 치른다. 이 시험은 언어, 수리 능력, 아이큐 테스트를 통해 어떤 중·고등학교가 학생의 능력과 성적에 맞는지를 평가한다.

1

## 학교는 즐거운 곳

아이들 행복 지수 1위(2017년 OECD조사 결과)로 잘 알려진 나라, 네덜란드. 아이들의 학교생활은 어떻게 시작될까? 네덜란드 아이들은 만 4살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유치원 과정 2년(Groep1.2)을 포함해 초등학교는 모두 8년 과정이다. 유치원 과정은 2년 동안 사회생활의 기초교육을 배우는 과정으로 유치원 입학식이 따로 없다. 아이들은 만 4살 생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집 가까운 초등학교에 가면 된다.

유치원 교육은 당연히 무료다. 네덜란드 유치원 교육은 학교 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덕목을 배우는 교육과정이다. 유치원 아이들은 초등학교 공부를 위한 글자나 숫자는 배우지 않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치원 교육에 유급이 있다는 사실이다. 4~5살 아이들에게 유급이 적용되는 교육방식이 놀랍기만 하다. 네덜란드 유학 시절, 앞집 아이(마티야스)가 유치원(Groep2)에서 유급당해 이 과정을 한 번 더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고집이 세고 친구들에게 양보하지 않으며 이기적인 행동으로 다른 아이에게 피해를 주는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유급을 당한 것이다. 네덜란드 부모들은 어린아이의 유급을 받아들인다. 아이들의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를 어린시기에 확실히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치원 2년 과정을 마친 아이들은 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과정(Groep3)으로 올라간다.